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6 국가직 7급 국어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비타에듀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대화는 열기를 띄기 시작했다.
- ②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 ③ 아침에 짚은 쌀이라서 밥맛이 정말 고소하군요.
- ④ 아침부터 오던 비가 개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 정답: ②

★ 문항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표기의 차이)

★ 정답 해설:

② 깃들이다: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
'깃들일'은 동사 '깃들이다'의 활용형이므로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깃들다: 아늑하게 서려 들다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미다.

★ 오답 해설:

- ① 띄기 → 띄기
떠다: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떠다: '뜨다'의 피동사인 '뜨이다' 혹은 사동사인 '떠우다'의 준말
- ③ 짚은 → 짚은
짚다: 곡식 따위를 쏘거나 뿔으려고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치다
찌다: 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다
('찌다'의 활용형으로도 '찐'이 옳은 표기)
- ④ 개이고 → 개고
개다: 흐리거나 굵은 날씨가 맑아지다
개이다: '개다'의 잘못

문 2.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숨이불[숨:니불]
- ② 직행열차[지갱열차]
- ③ 내복약[내:봉낙]
- ④ 막일[망닐]

★ 정답: ②

★ 문항영역: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 정답 해설:

- ② 직행열차[지갱열차]: 자음 축약(ㄱ+ㅎ→ㅋ)과 ㄴ첨가가 일어난다.
- ★ 오답 해설:
- ① 숨이불[숨:니불]: 뒷말이 모음 'ㅣ, ㅏ, ㅑ, ㅓ, ㅕ, ㅗ, ㅛ'로 시작 될 때 'ㄴ'을 첨가하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 ③ 내복약[내:봉낙]: 내복낙('ㄴ'첨가) → 내:봉낙(비음화)
- ④ 막일[망닐]: 막닐('ㄴ'첨가) → 망닐(비음화)

문 3.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功過)를 기록하는 전기(傳記) 형식의 글을 () 이라고 한다. 거북·대나무·지팡이·술·돈 따위의 동물이나 식물, 생활에 필요한 물건 같은 사물을 의인화해 그 생애를 서술한다.

- ① 평전(評傳)
- ② 열전(列傳)
- ③ 가전(假傳)
- ④ 실전(實傳)

★ 정답: ③

★ 문항영역: 독해(문학) - 갈래 이론

★ 정답 해설:

- ③ 가전(假傳):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 ★ 오답 해설:
- ① 평전(評傳):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
- ② 열전(列傳): 여러 사람의 전기를 차례로 벌어서 기록한 책
- ④ 실전(實傳): 실제의 전승이나 전기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은?

- 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철탐(贅言)에 불과하다.
- ② 한학의 온축(溫蓄)을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 ③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에 야기(惹起)하였다.
- ④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취(團聚)가 실현되었다.

★ 정답: ③

★ 문항영역: 한자 -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

★ 정답 해설:

- ③ '야기(惹起 이끌 야, 일어날 기)'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이라는 의미로 문맥상 어색하다.
- ★ 오답 해설:
- ① 철탐(贅言 혹 철탐, 말쑤 언):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 ② 온축(溫蓄 쌓을 온, 모을 축): 속에 깊이 쌓아 둠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음
- ④ 단취(團聚 등글 단, 모을 취):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문 5.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 정답: ①
★ 문항영역: 올바른 표현 - 문장 다듬기
★ 정답 해설:
 ①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예년 기운을 되찾을 것'이라는 상황이 주어이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어떤 주체가 어떤 상황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능동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오답 해설:
 ② '소개하다'는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잘 알도록 설명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따라서 주어인 친구는 학교를 소개한 것이 소개시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개시켜 준 학교'는 불필요한 사동표현으로, '소개해 준 학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불안한 수비와 문전처리'에서 '불안한 수비'는 서술어 '미숙하여'의 주어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처리가 미숙하여'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휴대'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의 뜻이다. 문맥상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을 실음'이라는 의미의 '탑재(搭載)'로 대체되어야 한다.

문 6. ㉠~㉣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春去花猶在 ㉠天晴谷自陰
 杜鵑啼白晝 始覺 ㉡卜居深
 - 李仁老, 「山居」 -
 (나)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 ㉢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 ㉣故人
 - 王維, 「送元二使安西」 -

- ① ㉠: 날이 개다.
- ② ㉡: 사는 곳이 깊다.
- ③ ㉢: 버드나무 빛깔이 새롭다.
- ④ ㉣: 돌아가신 분.

★ 정답: ④
★ 문항영역: 한자 - 한문
★ 정답 해설:
 ④ '㉣고인(故人)'은 '벗'을 뜻한다.
 [독음 / 현대어 풀이]
 (가)
 春去花猶在(춘거화유재) 봄은 가도 꽃은 아직 있고
 天晴谷自陰(천청곡자음) 하늘은 갠건만 골짜기는 절로 어둡하네
 杜鵑啼白晝(두견제백주) 소쩍새 한낮에 울고 있으니
 始覺卜居深(시각복거심) 비로소 개단노라, 깊은 골에 사는 줄을
 - 이인로, 「산거」 -
 (나)
 渭城朝雨浥輕塵(위성조우읍경진) 위성 땅, 아침 비가 흠먼지를 적시니
 客舍青青柳色新(객사청청유색신) 여관집 둘레 푸른버들빛 더욱 산뜻해라.
 勸君更盡一杯酒(권군경진일배주) 그대에 건하노니 다시 한 잔의 술을 들라.
 西出陽關無故人(서출양관무고인) 서쪽으로 양관 땅에 나가면 벗이 없느니라.
 - 왕유, 「송원이사안서」 -
★ 오답 해설:
 ① ㉠天晴(하늘 친, 깎 칭): 날이 개다.
 ② ㉡卜居深(점 복, 살 거, 깊을 심): 사는 곳이 깊다.
 ③ ㉢柳色新(버들 유, 빛 색, 새 신): 버드나무 빛깔이 새롭다.

문 7.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그는 고집이 어찌나 센지 한번 결심하면 (㉠)이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 | | | | |
|--------|------|------|---|
| | ㉠ | ㉡ | ㉢ |
| ① 搖之不動 | 間於齊楚 | 蓋世之才 | |
| ② 搖之不動 | 看於齊楚 | 改世之才 | |
| ③ 擾之不動 | 間於齊楚 | 改世之才 | |
| ④ 擾之不動 | 看於齊楚 | 蓋世之才 | |

★ 정답: ①
★ 문항영역: 한자 - 문맥에 적절한 한자성어
★ 정답 해설:
 ㉠ 요지부동(搖之不動): 흔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음
 - 搖 흔들 요 / 之 갈 지 / 不 아닐 부 / 動 움직일 동
 ㉡ 간어제초(間於齊楚): 약한 자가 한 자들 사이에 끼여 괴로움을 받음을이르는 말
 - 間 사이 간 / 於 어조사 어 / 齊 가지런할 제 / 楚 초나라 초
 ㉢ 개세지재(蓋世之才):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 만한 뛰어난 재기 또는 그러한 재기를 가진 사람
 - 蓋 덮을 개 / 世 인간 세 / 之 갈 지 / 才 재주 재
★ 오답 해설:
 - 擾(어지러울 요)가 아닌 搖(흔들 요)를 사용해야 한다.
 - 看(볼 간)이 아닌 間(사이 간)을 사용해야 한다.
 - 改(고칠 개)가 아닌 蓋(덮을 개)를 사용해야 한다.

문 8. ㉠~㉣의 표제어에 적합한 한자 표기는?
 ㉠ 유세: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 탐본: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 | | | | |
|------|----|----|---|
| | ㉠ | ㉡ | ㉢ |
| ① 遊說 | 徂歲 | 拓本 | |
| ② 遊說 | 租稅 | 搨本 | |
| ③ 誘說 | 徂歲 | 搨本 | |
| ④ 誘說 | 租稅 | 拓本 | |

★ 정답: ②
★ 문항영역: 한자 - 한자어의 자형
★ 정답 해설:
 ㉠ 유세(遊說 놀 유, 달랠 세)
 ㉡ 조세(租稅 조세 조, 세금 세)
 ㉢ 탐본(搨本 베낄 탐, 근본 본)

★ 오답 해설:

- ① 이 광고 문안에는 선풍기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선풍기의 구매를 유도하는 '호소 기능'이 포함되었다.
- ② 선풍기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 기능'이 포함되었다.
- ③ 선풍기가 고장이 날 경우 새 것으로 교환해 준다는 '약속 기능'이 포함되었다.

문 13.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욕은 공격성의 표현이자,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가 욕을 배워 친구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가) 그들이 집회에서 내뿜는 폭언은 자신들과 기성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이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자성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나) 그러나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 특수 용어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언어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욕과 같은 추한 말은 언어를 저하시키고 못쓰게 만든다.

(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학생들이 귀에 담기에 힘든 폭언을 내뿜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신들은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제 기성세대에,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성명이었다. 학생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히고 말았다. 입만 열면 욕설이 난무하는 집단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바보나 멍청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흉내를 내며 학생들 편에 설 수도 없었다.

(라)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 의사, 변호사, 공증인 등 이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을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가 특수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쓰면 그 분야 사람들은 화를 낸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 ① (나)-(가)-(나)-(라) ② (다)-(가)-(라)-(나)
- ③ (라)-(나)-(가)-(다) ④ (라)-(나)-(다)-(가)

★ 정답: ②

★ 문항영역: 독해 - 배열

★ 정답 해설:

- ② 배열될 내용 앞에 놓인 고정된 부분의 중심 화제는 '욕'이다.
- (가)의 중심어휘: 폭언, 구분 짓는 행동 양식
- (가)의 표지: 그들, 자신들
- '그들'이 폭언을 내뿜음으로써 '기성세대'와 자신들을 구분 짓고자 하겠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표지 '그들'은 '기성세대'와 대립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 (나)의 중심어휘: 욕, 특수 용어
- (나)의 표지: 그러나
- 욕과 특수용어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문단이다. '그러나'라는 표지는 앞에서 이미 특수용어의 특징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표지이다.
- (다)의 중심어휘: 학생운동, 학생들, 폭언
-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에서 학생들이 폭언을 내뿜었다는 내용의 문단이다. (가)의 표지 '그들'에 (다)의 '학생들'이 해당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단은 (가)의 '그들'이 폭언을 내뿜어 기성세대와 '자신들'을 구분 짓고자 했다는 부분 앞에 제시기에 적절하다.
- (∴ (다)-(가) → ③ 탈락)
- (라)의 중심어휘: 특수한 말, 전문 용어, 배신감
- '특수한 말'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다. 특수한 말과 욕을 구분하는 (나) 앞에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 (∴ (라)-(나) → ① 탈락)
- 한편, 지문의 첫 문단에 욕이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되나, 해당 내용이 구체화된 예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의 학생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언급되어야 한다.
- (∴ ② (다)-(가)-(라)-(나))

문 14. '고공'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러라
㉠ 처음의 한어버이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올벼논 텃밭이 ㉡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 호수(戶首)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가뭇이나 내 세간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① ㉠: 태조 이성계
- ② ㉡: 조선 팔도
- ③ ㉢: 임금
- ④ ㉣: 왜적

★ 정답: ③
★ 문항영역: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③ '고공가'는 임진왜란 이후 관리들의 이기적인 정치 행태를 비판한 가사이다. '고공(머슴)'을 '신하'에 비유한다면, '집'은 나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 호수(戶首)'는 '임금'이 아닌 '고공들의 우두머리'로 해석한다.
★ 오답 해설:
 ① '집'을 '나라'로 해석한다면 '㉠ 처음의 한어버이'가 살림살이 하려 한다는 것은 '나라를 건국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이는 태조 이성계이므로 적절하다.
 ② 원래 '㉡ 여드레 같이'는 '8일 동안 같아야 할 정도의 넓은 땅'을 의미하는데, '고공(머슴)'을 '조정의 신하'로 본다면 나라의 영토, '조선 팔도'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옛그제 '㉢ 화강도'에 의해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것은, 임진왜란에 의해 나라에 위기가 닥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 화강도'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돌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켤기였다. —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뺨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거르렁하였다.
 … (중략) …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인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 ①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 있다.
- ②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
- ④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 정답: ③
★ 문항영역: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③ 연이은 행운에 김첨지가 겁이 났다는 것, 그리고 아내의 부탁에 마음이 켤기었다는 것은 인물의 심리 상태를 그린 것이므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김첨지가 잇단 행운에 겁이 났음, 김첨지의 아내가 짙은 병색을 띤 상태로 김첨지에게 나가지 말라고 애걸하는 것은 김첨지에게 좋지 않은 일-아내의 죽음-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② 아내는 김첨지가 사온 설령탕을 먹지 못한다. 설령탕은 아내의 죽음이 가지는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④ 연이은 행운에 김첨지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긴장감이 조성된다.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 ①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독백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 정답: ②
★ 문항영역: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표현 이해
★ 정답 해설:
 ② 3음보의 반복과 변조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나/하늘로/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스러지는
 이슬/더불어/손에 손을 잡고
★ 오답 해설:
 ①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인간의 삶 역시 새벽녘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덧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을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삶과 죽음을 초월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구절의 독백적 어조를 통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없는 무욕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④ 죽음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자세를 독백적 어조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文學教育論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文學教育이 강화되면 國語科教育이 陳腐한 敎訓을 앞세운 道德主義 修身教科로 轉落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文學 少年少女의 感傷癖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文學活動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 중의 한 類型에 불과하며, 文學作品이 國語科의 教材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이 國語教育의 核心은 될 수 없다. 國語教育은 어디까지나 言語教育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 提報的인 것으로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 ①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③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 ④ 국어교육은 언어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 정답: ①

★ 문항영역: 독해 - 주제 + 논지 전개 방식

★ 정답 해설:

① 지문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과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고 하는 견해다.’라며 문학 활동의 가치를 많은 어휘량과 다양한 문장 표현의 양상에 한정짓는 견해가 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글 풀이]

문학교육론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문학교육이 강화되면 국어과교육이 진부한 교훈을 앞세운 도덕주의 수식교과로 전락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문학 소년 소녀의 감상벽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과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문학활동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언어활동 중의 한 유형에 불과하며, 문학작품이 국어과의 교재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문학이 국어교육의 핵심은 될 수 없다. 국어교육은 어디까지나 언어교육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언어기능의 형식도야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용구적, 제보적인 것으로만 보고 감화적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 오답 해설:

- ② 문학교육론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의 이유로 문학교육이 도덕주의를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았다.
- ③ 문학교육의 목적을 언어 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제한시키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문학교육이 국어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문의 전체적인 논지와 반대되는 것이다.
- ④ 국어교육을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18. ㉠~㉢의 문장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 아침부터 흐린 게비가 올런지 몰라 우산을 미리 챙겨 나갔다. ㉡ 길을 나서자 갑자기 곧 해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 시장 입구에는 옛된 소녀들이 우산을 들고 왓자지결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 소녀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두루뭉술하게 떠올랐다.

- ① ㉠의 ‘올런지’는 표기법에 맞게 ‘올른지’로 고친다.
- ② ㉡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 ㉢의 ‘옛된’은 표준어에 맞게 ‘옛뎌’으로 고친다.
- ④ ㉣의 ‘두루뭉술하게’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어렵듯이’로 고친다.

★ 정답: ④

★ 문항영역: 쓰기(작문) - 고쳐쓰기

★ 정답 해설:

④ ‘두루뭉술하게’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어렵듯이’는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함’을 의미한다. ㉣은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는 상황이므로 문맥상 기억과 관련된 어휘인 ‘어렵듯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오다’의 어간 ‘오-’에 ‘-르’는지’가 결합한 ‘올는지’가 올바른 표현이다. ‘올런지’, ‘올른지’ 모두 잘못된 표기이다.
- ② ‘햇님’은 ‘해님’의 잘못이다. 고칠 이유가 없다.
- ③ ‘옛된’은 ‘애티가 있어 어러보이다’라는 의미의 ‘옛되다’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형성된 활용형이다. ‘옛따’라는 용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옛뎌’가 맞는 표기이다.

문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나 혹은 이타적이나 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 논리를 지양하고 (㉠)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그저 지적 호사자들의 관심이나 끝 법한 낡은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을/를 풀어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 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맡아 왔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이/가 되어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되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 | | | | |
|-------|----|----|----|
| ㉠ | ㉡ | ㉢ | ㉣ |
| ① 다원성 | 의문 | 전범 | 착종 |
| ② 다양성 | 회의 | 지침 | 고착 |
| ③ 중층성 | 질문 | 모범 | 연루 |
| ④ 융합성 | 반문 | 통찰 | 편향 |

★ 정답: ②

★ 문항영역: 독해 - 빈칸추론

★ 정답 해설:

②

㉠: '흑백논리를 지양하고 ㉠을 강조하는'이라는 문장을 통해, ㉠에는 흑백논리와 반대되는 의미의 어휘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근원이 많음'을 의미하는 '다원성' 내지는 '모양, 형태, 빛깔,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의미하는 '다양성'이 들어갈 수 있다.

㉡: ㉡은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라는 문장의 성질을 함축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문장은 인간 본성에 대한 구시대적인 이분법적 질문보다 본질적인 의문에 해당한다. '의심스럽게 생각함'이라는 의미의 '의문' 혹은 '회의'가 들어갈 수 있다.

㉢: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내지는 종교적 답변 중 일부가 인간의 삶에 대한 ㉢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을 통해, ㉢에 '기준 및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향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을 의미하는 '지침'이 들어갈 수 있다.

㉣: 문맥상 ㉣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종교적 답변에 대한 한계-인간 중심적 사고에 국한되어 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물건 같은 것이 굳게 둘러붙어 있음'을 의미하는 '고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중층성: 여러 층으로 된 것의, 가운데를 이루는 층
 융합성: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 질문: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반문: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되받아 물음

㉢ 전범: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모범: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 착종: 이것저것이 뒤섞여 엉클어짐
 연루: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관련되다.
 편향: 한쪽으로 치우침

이러하면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은 메티실린 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 메티실린은 포도상 구균을 물리치며 맹활약했지만 세균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메티실린의 효과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들이 등장했고, 이에 인류는 반코마이신을 개발해 탈출구를 열었다. 이들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그람 음성 세균은 카바페넴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슈퍼 박테리아)도 등장했다.

- ①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 ②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 ③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 ④ 앞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 정답: ③

★ 문항영역: 독해 - 일반 추론

★ 정답 해설:

③ 지문은 세균을 죽이기 위한 인류의 항생제 개발과,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세균 간 치열한 전쟁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문의 말미에 현존하는 최강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균'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지문의 흐름상, 이에 대응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 될 것이라는 내용이 배열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오답 해설:

- ① 새롭게 생겨난 강력한 세균들에 대항하여 항생제를 개발해왔다는 지문의 전체적인 논지와 어긋난다.
- ②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언급된 바 없으며, 항생제의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여야 할 근거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어질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 ④ 항생제 개발에 대항하여 내성을 가진 세균이 등장한다는 지문의 논지와 어긋난다.

문 2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페니실린은 약품으로 정제된 이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세균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사용이 잦아지자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골라 죽이는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겨내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다. 플레밍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실린에 내성인 세균이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이 곧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